

서문_ v

서론

- 1. 자생적 영어교육 연구를 꿈꾸며 1
- 2. 이 책의 현실 인식 6
- 3. 이 책의 구성 8

제1장 우리는 영어를 왜 배우는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역사

- 1. 고려와 조선의 외국어 학습: 소수정예의 체계적 통역관 양성 14
- 2. 영어를 배우려는 욕망: 호구지책과 출세 지향 18
- 3. 일제 식민지 시대 영어교육의 변질: 경쟁적 동기의 부상 24
- 4. 해방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입시를 위한 대국민 영어 29
- 5. 신군부 집권하의 영어교육: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각 33
- 6. 1990년대 이후의 영어교육: 국제화 시대의 본격 개략과 영어 말하기 능력의 필요성 대두 ... 35
- 7. 요약: 우리나라 영어 학습 동기의 시대별 변화 37

제2장 사회 현상으로서의 영어 학습 동기

- 1. 세속적 출세 지향 동기와 경쟁 동기의 지속적 확산 39
- 2. 보험으로서의 영어 공부와 분신 가족주의 47
- 3. 키치(Kitsch)로서의 영어교육 53
- 4. 문화자본으로서의 영어교육 57

1. 제2언어 학습 동기 연구의 두 가지 환원주의	67
2. 제2언어 학습 동기의 행위이론적 접근	73
2.1. 행위이론 개관	74
2.2. 행위이론 관점에서 본 동기	79
2.2.1. 동인, 지향점, 목표	79
2.2.2. 동인과 동기	82
2.2.3. 동기, 무동기, 탈동기의 관련성	84
2.3. 행위이론 관점의 제2언어 학습 동기의 정의	86
3. 제2언어 교수 동기의 이론과 실제	91
3.1. 교사 동기 연구의 세 가지 주요 영역	92
3.2. 제2언어 교사 동기 연구	94
3.3. 행위이론의 제2언어 교사 동기への 적용 가능성	99
3.4. 행위이론적 관점에서의 제2언어 교사 동기 분석	103
4. 제2언어 학습 탈동기화의 이론과 실제	110
4.1. 탈동기화의 개념	111
4.2. 탈동기화에 대한 공시적 접근	115
4.3. 탈동기화에 대한 의사 통시적(pseudo-diachronic) 접근	118
4.4. 행위이론적 관점에서의 탈동기화	126
4.4.1. 탈동기화への 행위이론 적용 가능성	126
4.4.2. 행위이론의 실제 적용 및 분석 사례	131

1. 동기 이론의 흐름에 따른 국내 연구 정리	139
1.1. 사회교육모형과 자기결정이론	139
1.2. 목표지향성이론	145
1.3. 제2언어 동기 과정 모형	148
1.4.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150

1.5. 비교초기 사회문화이론과 제2언어 학습 동기	153
2. 국내에서 수행된 주제별 제2언어 학습 동기 연구	156
2.1. 동기와 영어 학습 태도	156
2.2. 동기와 영어 학습 불안	159
2.3. 동기와 영어 학습 전략	162
2.4. 동기와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164
3. 요약 및 제언	168

제5장 연령대별 영어 학습 동기의 차이

1.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	171
2.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화 연구	181
3.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경쟁적 동기의 부상	192
4.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양상의 비교	207
5.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회고적 영어 학습 자서전 분석	214
6.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 동기	227
7. 노인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237

제6장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주제별 분류

1. 학습 동기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별적 영향력	259
2.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영어 학습 동기	274
3. 거주 지역의 빈부 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서울 강남 대(對) 비강남	283
4. 어학연수의 효과성과 영어 학습 동기: 캐나다 어학 연수생들을 중심으로	292
4.1. 외재적 동기의 지배: 초기 1~2개월	298
4.2. 내재적 동기의 발생: 3개월 전후	301

4.3. 모순의 심화	304
4.4. 내재적 동기의 소멸 및 외재적 동기의 재등장: 귀국 전 1~2개월	307
4.5. 논의 및 시사점	310
5.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의 효과성과 영어 학습 동기	316
6. 영어 학습 동기와 불안감이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의지와 영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335
7. 영어 학습 동기, 학습 책략, 학습 주도성의 관계	354
8. 인지된 학습 유형과 영어 학습 동기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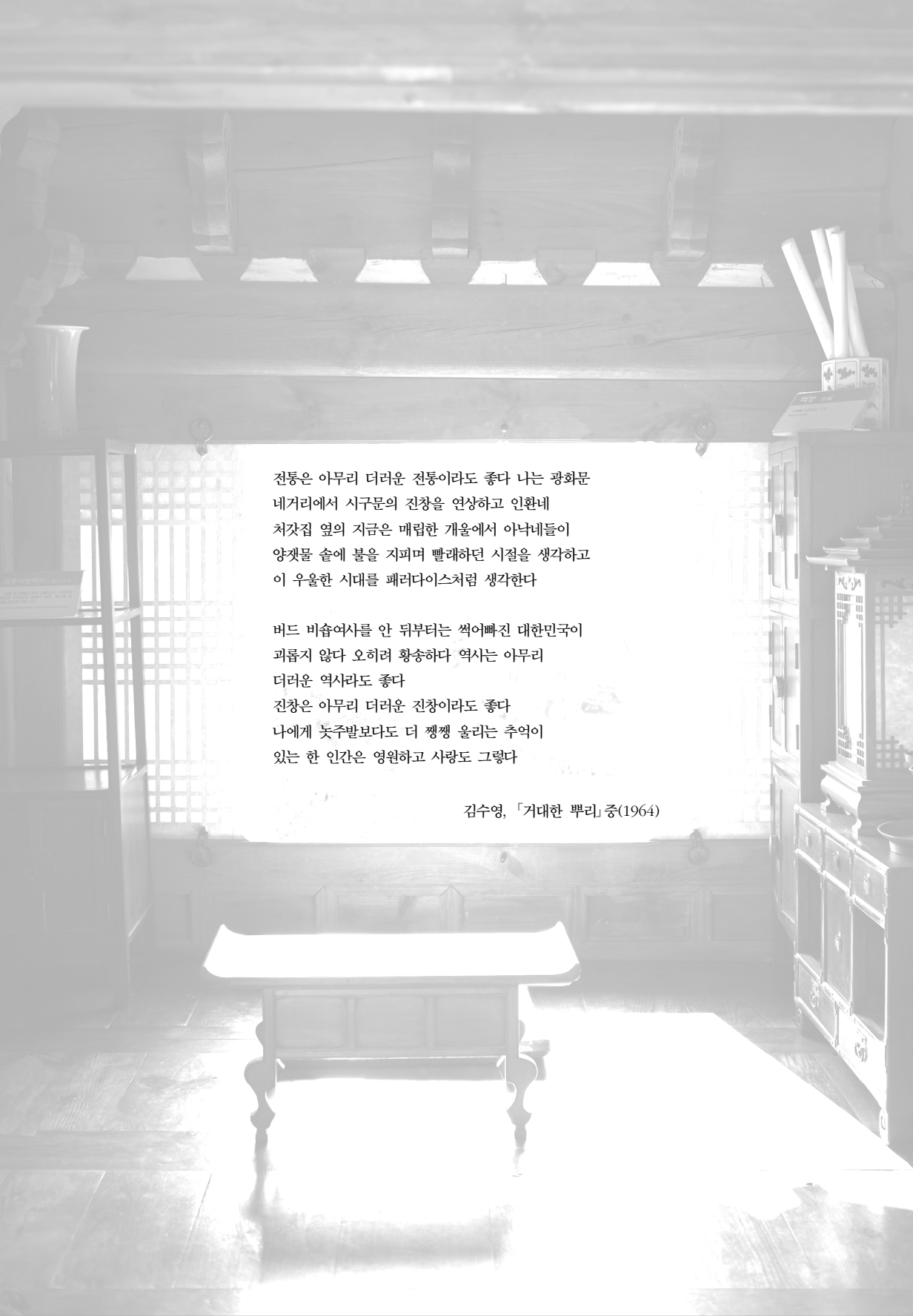
제7장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전망과 제언

1.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향후 전망	387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93

참고문헌_ 399

<부록 1> 영어 학습 동기/탈동기 설문지_ 431
<부록 2> 영어 학습 탈동기화 및 동기 요인 설문 문항(구인별 예시)_ 437
<부록 3> Kim(2006a, 2010a) 본 연구용 설문지_ 439
<부록 4> 노인 영어 학습 동기 탈동기 설문지_ 442
<부록 5> TEE 수업에 대한 호감도, 불안감, 영어 학습 동기 설문_ 446
<부록 6> 영어 의사소통의지, 불안감, 학습 동기, 영어 사용빈도 설문_ 448
<부록 7> 영어 학습 동기, 초인지 학습 책략, 학습 주도성 설문 문항_ 450
찾아보기(한영)_ 452
찾아보기(영한)_ 45?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술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디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뚝발보다도 더 쟁쟁 올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김수영, 「거대한 뿌리」 중(1964)

1. 자생적 영어교육 연구를 꿈꾸며

전공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대학 강단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다.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편견이던 아집이던 간에 어느 정도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필자의 경험상 국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약주도 잘 드시고 풍류를 잘 아는 분들이 많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재에 밝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실용적인 학문을 하시고, 중국어를 전공하는 분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생각과 느긋한 성품을 지닌 분이 많다. 그렇다면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교육을 업으로 삼아 대학에서 생활하는 영어교육학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필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일단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참 많다. 영어의 글쓰기 방식은 일찍이 Kaplan(1966)이 명료하게 분류하였듯이 직선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다소 무미건조하게 쓰는 경향이 있고, 처음부터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힌 후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푼부러지게 제시하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주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글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글쓰기가 몸에 배어서인지 사고방식도 명쾌하고 직선적인 분들이 꽤 많다. 영어교육학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미권 국가들의 학술 업적에 대한 매우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다는 점이다.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히 미국 혹은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본인들의 논문에 인용도 하고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지역에서 나온 연구가 무엇 때문인지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더 권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어민 교사, 특히 젊은 백인 원어민이나 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업이 한국인 영어 선생들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모든 학계가 그렇듯 영어교육학계에서도 여러 유관 학술단체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조연설자를 초청할 때는 대부분 미국 혹은 영국, 홍콩 등의 원어민 교수들을 ‘모셔서’ 그쪽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를 소개받아 왔다. 최근 들어 기조연설자들이 다소 다양해져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초청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영어는 미국, 영국 쪽이 제일이고 연구도 역시 그렇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필자가 이 책의 앞머리에 이런 다소 생경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원 석사 과정 때부터 영어 학습 동기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했으니 햇수로 이제 15년 정도가 되었다. 영어 학습 동기 연구를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내용들은 캐나다 웨스턴 대학의 Gardner(1985)가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는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같은 내용들이었고,¹⁾ 다소 순진하게도 필자는

1) Gardner(1985)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는 잘못 알려진 면이 있는데, 이 두 개념들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며, 동기, 동인, 지향성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김태영, 2013). (참고로 Gardner는 다중지능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Howard Gardner와는 다른 사람인 Robert Gardner이다. 그는 1950년대 중반 캐나다 몬트리얼의 맥길 대학에서 Lambert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200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

우리나라에서 도구적 동기가 우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합적 동기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영어를 배우는 동기가 너무 세속적이고 도구적으로 치우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학부 시절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이라고 배웠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가 사용되는 곳에 직접 가서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좀 더 공부하다보니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Ryan과 Deci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같은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필자는 다른 많은 동기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외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에 처음 접했던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 자체가 서양의 동기 연구의 주요 발견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내 자신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영어 시험에서 100점 받아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외재적 동기가 많았다. 고등학교 때 너무나 힘들고 지겹게 성문종합영어 같은 영어 참고서를 7~8번씩 공부하고 외우다시피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원어 민 사회에 동화되고 싶다는 통합적 동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코앞에 닥친 대학 입시에서 영어 시험을 잘 보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근시안적(하지만 절박한) 도구적 동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도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점철된 내 자신의 영어 학습 동기의 기억은 철저하게 망각하고는, 짐짓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은 최근 학교 명칭을 웨스턴 대학으로 변경했다.) Ryan과 Deci(2000)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역시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나 이것은 명확히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구분된다기 보다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무동기-외재적 동기(외적 조절, 내사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 조절)-내재적 동기의 연속성을 띤 개념이다.

통합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영어 학습자로서의 내 삶의 경험 역시 소중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잊고 내가 배운 서구 이론에 따라 내 삶과 유리된 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간 많은 개별 연구들이 있었고, 그 성과 역시 상당하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필자가 그간 수행한 연구들을 포함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연구들이 연구 참여자도 우리 학생들이고, 연구가 수행된 학교나 환경도 우리나라, 연구자 자신도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영미권 연구의 이론적 틀에 경도되어 그것을 잣대로 우리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학습 동기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어쩌면 필자가 위에서 고백한 영어 학습자로서의 경험에서 우리 난 학문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식된 서구 지식에 따라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학문을 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가 2013년에 출간한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최근 경향』 역시 대학원 석사 혹은 학부 고학년 수준의 입문서의 성격이 강해서 영미권 국가들의 제2언어 학습 동기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우리 교육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Gardner(1985, 2010)의 사회교육모형이라든지,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이론이라든지 하는 식의 수입된 이론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 그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이론이라고 포함시킨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이론 역시 어찌 생각하면 서구 이론인 러시아 심리학의 이론을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최근에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2013년 저서는 입문서의 성격상 우리 땅에서 배태된 다양한 영어 학습 동기 현상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상 여러모로 여의치 않았다.

남들이 발전시켜 온 이론을 가져와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이론으로 정립된 개념은 다양한 시공간적 환경에서 계속 수행되어야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 분야는 복제연구(replication study)로 분류되어 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빌려서 마치 애초부터 내 것인 양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을 타자의 관점으로 불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 학술 연구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이제는 우리들도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나가서는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나를 우쭐대면서 다닐 줄도 알고, 아시아를 벗어난 많은 나라에서도 Samsung, Hyundai 같은 브랜드를 가진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알고, 한류 문화 중 싸이, K-pop, 대장금, 겨울연가,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정도를 이야기하면 젊은 외국인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는 된다. 하지만 정작 이 책에서 다루고자하는 영어 학습 동기 연구는 어떠한가? 필자가 과문하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어 학습 동기 연구자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내 개인적으로도 언제까지 가드너(Robert Gardner), 도네이(Zoltán Dörnyei) 같은 ‘국제 저명 학자님’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늙어 죽을지 모르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만 든다. “외국 학자 누구는 이랬다”, “또 다른 누구는 저랬다”는 식으로 남 이야기만 맛깔나고 구성지게 하는 이야기꾼(storyteller) 역할만 하다가 정작 그 원작이 되는 명작 동화 작가(writer)는 한 번도 못해보고 생을 마감할 것만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어떠한가? 이 책에서 필자는 남의 이론과 남의 평가 잣대에 따른 ‘남말’하듯이 우리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교육 현실을 우리 인식을 통해 ‘나의 말’을 조리있게

하면서 영어 학습 동기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것이 성공일지 혹은 실패로 귀착되고 말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2. 이 책의 현실 인식

필자는 사범대에서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영어 선생님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 또한 선생이다. 의사가 인간의 육신을 담당한다면 교사는 인간의 마음을 담당하는 고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자이다.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현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영어 학습 동기 연구도 학생들이 더 즐겁고 기쁘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당연히 더 나은 배움을 지향하는 선한 의도를 지닌 행위이고, 교육자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영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동기가 떨어진다면 왜 떨어지는지, 동기를 높이는데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정확한 현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따른 올바른 교육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영미권 연구의 결과도 물론 참고하여야겠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 영어 교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지, 즉 동기가 어떠한지를 정채(精緻)하게 분석해 내야 한다. 통합적 동기를 높여야만 한다거나 내재적 동기를 높여야만 한다는 식의 당위적 주장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하는 교실에서 무슨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

피는 현실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은 이제는 외국의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우리의 교육환경에 기초하여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제2장부터 상세히 다룰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한다는 노이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중요 과목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 동기이니 도구적 동기이니를 대학 강단에서 따지거나 외재적 동기를 줄이고 영어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내재적 동기를 길러 주어야 한다느니 하는 당위성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일지 모른다. 착하고 예쁜 우리 아이는 도구적 동기만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찌 해야 하고, 외재적 동기만 있는 것 같은 우리 애는 문제이란 말인가? 학술적 논의가 어찌 흘러들 가던 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어제 또 오늘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능 독해 지문을 읽고, 대학에 가서는 토익 스피킹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점수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껏 학계에서 발표된 각종 영어(혹은 제2언어) 학습 동기 이론은 당연히 학술적,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필자가 늘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러한 선행 이론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지니던 간에 그것은 그 연구자가 속한 사회적 토양에 더 적합한 것이지, 우리 환경에도 맹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차분한 비판의식이 우리들에게 충분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학술지 논문 심사를 의뢰 받아서 영어교육 관련 논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글쓴이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을 분석하고 논지를 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가 단 한편도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저 외국의 저명하신 ‘원어민 학자님’들이 쓰신 논문들만 열거하며 그 연구에 기대어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을 판단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풍토는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영어가 체계적으로 교수된 해수가 1883년 동문학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3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어교육의 핵심 학회인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가 창립 된지도 어느덧 50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영어교육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실제적 교육방법의 노하우가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의 학술적 노력은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체계화하지 못했고, 영미권 연구를 추종하는 학문적 사대주의는 여전히 잔존하여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필자는 맹목적으로 국수주의적 학문을 하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외국의 연구를 참조하며 인용하고 공부하되, 관심과 애정은 우리의 영어교육 환경에 쏟아야 지속적이고 진지한 우리들의 연구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그것만이 영어교육의 현실을 온전히 모두 다 반영한 한국적 이론을 정립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때에 우리는 학문적 자기부정을 끊고,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환경에서 생육된 자생적 이론을 외국에도 소개하여 영미권 국가들과의 평등한 학문적 교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인식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묘안도 착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책의 구성

필자는 중국 고사성어를 좋아한다. 나를 현학적이라고 힐책해도 할 수 없겠지만, 고사성어에는 짧은 구절만으로도 정곡을 찌르는 묘미가 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필자의 첫 번째 기본 정신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일 것이다. 위에서 비판했듯 영미권 선행연구를 답습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에

서 이전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영어 학습 동기는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태되고 변용되어 왔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핀다면 지금 우리의 영어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탈동기(demotivation), 무동기(amotivation), 재동기(remotivation) 등 등의 다채로운 변화를 온전히 포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필자는 여러 가지 영어 학습 동기 관련 주제와 역사적, 사회적 이슈들을 시대를 넘나들며 제시할 것이다. 혹자는 이런 내용들이 영어 학습 동기와는 별반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은 후 독자들이 영어 학습 동기를 접근할 때, ‘뜰뜰한 학생들은 높은 동기’, ‘덜 뜰뜰한 학생들은 낮은 동기’와 같이 그 책임 소재를 애꿎은 학생 탓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동기는 단지 학생들의 심리 현상에만 국한된 개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가 투영되어 있고, 치열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죽기살기의 입시, 취업 전쟁이 반영된 것임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는 부모의 경제력, 직업, 거주 지역, 사교육 등과도 떼어낼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투영된 현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한 두 번째 기본 정신은 회궤도위지(懷橘渡爲枳), 즉 ‘귤나무가 회수(淮水)²⁾를 지나면 탱자가 되어 버린다’는 고사이다. 다른 나라의 이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우리 환경에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이론이 아무리 저명한 학술지나 책으로 출판되었더라도 우리에게 잘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 책에도 많은 서구

2) 한자로는 회하(淮河, 화이하)라고도 하는데, 장강, 황하와 더불어 중국의 3대 강으로 불린다. 길이가 약 1,080km이며 황하와 장강 사이를 동서로 흐른다고 한다. (필자는 회수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다.)

이론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으로 그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 현실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취사선택을 통해 ‘굴나무에서 굴이 열리’기 위해 우리 환경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 동기 연구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탈동기, 그리고 영어 교수 동기 등은 우리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동기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적(史的) 분석을 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래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영어를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였고,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집단 경험을 중심으로 영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탐구한다. 제2장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형성하게 되는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1장에서 밝힌 출세지향의 경쟁적 동기를 포함하여 보험으로서의 영어 학습, 분신 가족주의, 키치로서의 영어교육, 문화자본으로서의 영어교육을 다루었다. 제3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 특히 행위이론(Activity Theory)을 영어 학습 및 교수 동기와 탈동기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영어 학습/교수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행위이론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새로운 이론을 찾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장은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개관으로 영미권의 중심 이론을 먼저 제시한 후, 그 이론들이 우리나라 영어 학습 동기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주제별 그리고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제5장은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의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영어의 영향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므로, 영어 학습자들의 연령대별로 초등, 중 고등, 대학, 직장

인, 노인층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를 개관하였다. 제6장은 영어 학습 동기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접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가급적 다채로운 현상들과 영어 학습 동기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가 학생들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의 빈부 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차이, 어학연수가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이른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의 양상, 의사소통의지가 영어 학습 동기 및 불안감과 맺는 관계, 학습 책략과 학습 주도성의 영어 학습 동기와의 관련성, 학습 스타일 혹은 유형이 영어 학습 동기와 맺는 관계 등을 탐구하였고, 마지막으로 무동기화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이와 같은 책의 구성은 주로 필자가 지금까지 수행하였던 학습 동기 연구의 내용을 최적화한 결과이다. 개별적인 학술지 논문 형식으로는 세부 주제만을 천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으므로 필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 생애사적, 주제별 정리를 통해 영어 학습 동기의 포괄적 양상을 종(縱)과 횡(橫)으로 날줄과 씨줄을 엮듯 촘촘히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술하였듯 영미권의 선행 연구 중 상당 부분은 필자가 2013년에 펴낸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최근 경향』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제4장에서 요약 정리한 부분 이외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2013년 이후 학술적 진전이 있었던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 책에도 포함하였다.

모든 책들이 그렇듯 일단 발간된 후에는 더 이상 저자의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각자의 편익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여도 좋고, 혹은 주제별로 묶어 읽어도 좋을 듯하다. 영어

학습 동기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 1장과 2장을 먼저 읽어도 좋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연령대에 관심이 있다면 제5장을 먼저 살펴도 좋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색인의 도움을 받아 제6장의 주제별 내용을 먼저 훑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으로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자생적 연구의 토양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되었으면 한다.